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광주 위한 정책공약 180개 완성”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광주를 위한 정책공약 180개를 완성하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그동안 ‘500만 광주광역시’를 키워온 공약부터 광주산업혁명시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즌2, 서민생활 금융정책 등 경선기간에 발표한 정책 공약 180개를 완성했다”면서 “지역 구석구석의 소리를 들으면서 강기정의 정책 공약은 앞으로 더 늘어나고 더 구체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가 내건 180개 공약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시민일자리 ▲창업·중소기업 키우기 ▲대기업 지키기 ▲6대 전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5단계 조성 ▲공공교통 전환 등이다.

이용섭 ‘미세먼지 없는 광주 만들기 공약’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광주시의회 기자 브리핑룸에서 ‘1차리·경제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 중 열 번째인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후보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수립부터 측정·검사·예보·조치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제정과 함께 전담부서를 설립해 5개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저금지원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과 지방 보조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청년유도회 광주본부, 양향자 지지



성균관청년유도회 광주시본부 회원 121명은 18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 후보가 다른 경쟁후보와 달리 일관되게 정책선거에 앞장섰다는 것과 ‘100년 뒤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그랜드 비전’을 통해 더 좋은 광주시를 만들어 갈 것임을 기대하고 이에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광주에서 리더를 자처한 몇몇 시장출마 인사들에 의해 넓은 기득권에 머물러 있는 것에 아쉬워했고, 미래의 희망과 목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참담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들은 광주의 역동성을 찾게 할 양향자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그의 승리를 통해 광주가 희망의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전남 발전 문제인 정부 성공 뒷받침”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8일 “반드시 승리해 ‘선당후사’ 이계호 의원, ‘아름다운 동행’ 신정호 예비후보와 함께 전남 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예비후보는 “결선투표에 즈음한 호소문”을 내고 “문제인정부 탄생으로 나후와 소외에서 벗어난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전남의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전남 발전을 통해 문제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다시 경선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겸허한 자세, 새로운 마음으로 결선투표에 임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선을 치루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감 후보

이정선 “현장중심 교육 구현 복지도시 실현”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광주복지연대에서 추진한 6·13 지방선거 ‘좋은 복지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복지연대에서 저의 철학과 정책을 보고 좋은 복지후보로 평가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시민중심의 광주교육, 현장중심의 광주교육을 구현하여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동행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역 복지단체 연합체 성격인 광주복지연대는 교수 등 복지전문가와 함께 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복지철학, 복지활동, 복지공약, 소통합치, 일반사항 등을 평가해 총 27명을 좋은 복지 후보로 선정했다.

고석규 “교육유공자 추모공원 조성할 것”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해 귀감이 된 분들을 기리고, 그 자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유공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교육유공자 추모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이며 추모의 공간이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교육발전 유공자관’과 ‘교육역사관’으로 나누어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발전 유공자관에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등 ‘민족의 스승’ 공간과 전남(호남) 출신 국민교육 발전유공자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역사관은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과서, 학용품, 교실, 교복 등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박물관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오인성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하겠다”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이 보완됐지만 최근 일어난 서울 방배초 인질 사건과 미세먼지, 석면, 지진 등 안전 위협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학교 현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면밀히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자 신상확인 규정준수, 학교 보안관 증원, 교실 내 미세먼지 제로화, 내진기준 강화 등을 담은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립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인성교육을 제1의 전남 교육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광주 민주화 역사 보존 프로그램 도입”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주에 4·19 혁명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3·15 의거의 출발점이자 4·19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기념식만 있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국 지자체 유일의 4·19 기념관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분명한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3·15의거, 4·19혁명을 거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광주의 역사를 알리고 거리 곳곳에 숨겨진 민주화운동의 흔적들을 유지·보존할 광주 민주화 역사 보존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靑 인사 시스템 혁신적 조치 필요”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관행과 ‘후원금 땀처리’에 제동을 거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진보진영 인물만 발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대접받기 위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국회도 후원금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거나 지원 기준에 대해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재욱 “공항 활성화로 무안 국제도시 만들 것”



백재욱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인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로 무안을 하늘을 여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면서 “이제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시설개선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접근성 개선과 환경해권 물류 고역 증가에 대응하는 항공복합산업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거 무안공항 주변 ‘한중산단 조성’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투자선도지구 지정, 비행훈련센터, 소형항공기 격납고, 정비장 등 주요 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한 금융·인센티브 지원 등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장 후보

임택 “장애인 복지 실현 따뜻한 동구 만들 것”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구청장 예비후보가 18일 광주시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얼마 전 막을 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찼다”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편견과 소외는 남아있다”면서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잘 마련해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따뜻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곧 복지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사랑 기도포럼 회장·회원, 임우진 후보 지지



나라사랑 기도포럼 대표회장 안영로 목사와 운영위원 등 10명이 18일 광주 서구청장으로 임우진 구청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광주시당에서 민정일치로 의결한 임우진 서구청장의 ‘예외적 적격’ 요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광주시민을 무시하고 서구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할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임우진 서구청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목사 등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에 제출했다.

문인 ‘북구 여성 행복원센터’ 운영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맞벌이와 출산, 육아, 가사, 성차별,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밀착행정 필요하다”며 “여성관련 정책과 종합지원을 위한 ‘북구여성 행복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북구여성행복원센터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경력단절, 다문화 가정, 미혼모, 성폭력 등 여성관련 종합대책과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면서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상필·조오섭 민주 광주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문상필, 조오섭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

18일 문 후보와 조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18~20일 사흘간 북구청장 후보적합도 조사를 한다.

일반 전화여론조사 방식이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와 조 후보의 단일화는 일찌감치 예상됐다. 같은 고교 동문으로, 나란히 재선 시의원이며 지역구도 겹쳐 끊임없이 단일화 논의가 제기됐다. 조 후보는 북구2(우산, 문흥1·2), 문 후보는 바로 옆 북구3(풍향, 두암1·2·3, 문화, 석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현재 북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에서는 문·조 후보를 비롯해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상훈 전 북구의회 의장이 경선 4파전을 치르고 있다. 민주평화

당은 이은방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북구청장 선거는 한때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현재는 5명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민주당의 컷오프와 문·조 예비후보의 단일화에 따라 후보군이 더욱 줄 전망이다.

한편 민주 광주시당은 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오는 25~27일 케이블TV 토론회를 연다. 이어 5월 3~4일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5~6일 구청장 후보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oytour (조이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apan (Kyushu, Matsuyama) and Alps (Nagano, Matsumoto). Includes contact info, website, and promotional text.